

〈기조연설〉

1992년 6월 4일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

##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향한 韓·美關係와 韓·日關係

공 노 명\*

존경하는 김형욱 총장님, 그리고 학술회의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제주대학교와 外交安保研究院의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향한 韓·美關係와 韓·日關係”세미나를 開催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제주대학교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전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태시대의 개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東西冷戰의 終熄으로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의 軍事, 安保, 理念 대결 등이 주축을 이루던 시대로부터 무역, 금융, 기술의 흐름이 국가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이러한 凡世界的 趨勢를 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일종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로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地域입니다. 아·태지역의 交易量은 세계무역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經濟는 세계 GNP의 48%를 生産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유럽지역의

---

\*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제지수들을 이미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350억 달러에 달하는 아·태 지역의 무역량은 대서양지역 무역량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아·태지역은 1990년대에 있어서 世界經濟成長의 전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태동과 관련, 이 지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역동적인 經濟發展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은 역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美國과 蘇聯이 주도했던 冷戰秩序가 종식되고, 「冷戰以後時代」에 들어오면서 國際關係의 주축이 交易, 投資, 技術移轉 등 경제위주의 축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美國·日本·西歐 등 世界經濟의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日本은 다극화된 冷戰以後時代에 있어서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經濟超強大國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日本은 自國의 經濟力에 걸맞는 國際的 役割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日本은 앞으로 自國의 國際的 役割 增大를 위한 外交的 노력을 더욱 강력히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과 관련, 일본의 國際的 役割 增大노력이 이 地域에서의 日本의 영향력 팽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經濟力으로 볼 때 中國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全域에 대해 日本의 影響力은 이미 美國의 影響力과 대등하게 되었으며, 投資와 援助部分에서는 오히려 美國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國家들의 지속적인 經濟發展에 있어서 美國의 거대한 市場은 필요 불가결한 要素입니다. 日本을 포함하여 아·태지역의 국가들 대부분은 輸出의 1/3정도를 美國 市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아시아 國家들의 對日本 輸出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美國으로서도 날로 커지는 동아시아의 市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美國의 太平洋 交易은 총량면에서 10년전에 이미 大西洋 交易을 능가하였으며, 금세기 말에는 두 배를 훨씬 上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東아시아와 北美大陸이 太平洋을 매개로 얼마나 깊고 넓게 그리고 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보面에서도 태평양 兩岸間의 연결은 經濟的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冷戰以後時代에 들어와 유일한 超強大國으로 존속하게 된 美國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東아시아의 地域安定을 위하여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冷戰의 終熄에도 불구하고 東아시아 地域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美國은, 冷戰終熄 및 이로 인한 국방예산삭감추세로 東아시아 주둔군을 점차 감축시켜 나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역강대국간 세력경쟁을 견제하는 균형자(balancer)로서 지역안정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駐韓美軍減縮, 駐韓·駐日 美軍駐屯費用의 分擔 및 日本과의 役割分擔論 등은 미국의 退潮를 의미한다기보다, 韓·美, 그리고 美·日間的 보다 성숙된 동반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冷戰以後時代」國際情勢의 大轉換期를 맞이하여 韓·美關係와 韓·日關係는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韓·美關係와 韓·日關係는 그동안 우리 外交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도 한·일간의 교역량은 335억 달러이며, 한·미간의 교역량은 375억 달러인 바, 이는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량은 4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있어서도 韓·美關係와 韓·日關係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이 再定立되어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韓·美關係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일방적인 또는 불평등했던 關係가 보다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經濟發展에 따라 國力伸張과 國際的 位相이 크게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民主化로 국민들의 外交政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은 물론, 특히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民族自存意識 고양으로 國力에 걸맞는 自主的 外交政策을 추진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과 美國은 政治·外交·安보·軍事 등 多次元에서 매우 긴밀한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입각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韓半島 安보는 물론 冷戰以後時代의 國際秩序

維持와 관련, 최대의 안보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核開發 문제는 물론 南北韓 關係의 진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韓·美 兩國은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未來指向的 양국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兩國間 軍事安保同盟關係유지와 經濟通商協力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韓國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해야 할 분야는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가시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韓半島 統一 실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미국이 지지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韓半島 周邊의 어떠한 국가들 보다도 韓半島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韓·日關係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兩國 國民間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깊은 국민감정의 용어리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韓·日間 정신대를 둘러싼 논쟁, 일본왕의 화형식, 요코하마 한국영사관 난입사건 등의 문제로 더욱 증폭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兩國間의 구조적인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일본의 소극적 對韓國기술이전문제 등으로 그 마찰의 성격이 복잡화되고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걸프戰爭을 前後로 하여 일본은 國際社會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經濟力에 바탕을 둔 강력한 政治的 影響力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90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캄보디아의 平和를 위한 外交的 조정 회의,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의 관여, 일본의 資本과 技術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 中國에 대한 발언권 증대 등이 좋은 사례이며, 심지어는 세계의 超強大國인 美國마저도 일본의 經濟的 도전으로 어려운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韓半島에 대한 강력한 政治的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마저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북한간의 國交 正常化가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첨예한 대립과 같

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美·日 關係속에서 한국은 미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협력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經濟超強大國 일본과의 갈등해소를 통하여 善隣友好關係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의 友邦으로서 일본과의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우리 外交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韓·日兩國은 국민감정상의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냉철한 이성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兩國關係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걸친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韓·美關係와 韓·日關係에 관한 문제점이 추출되고, 아울러 여기 모이신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위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주대학교의 김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